



“남김없이 쏟았다. 지지 않았다” 11일 오전(한국시간) 콜롬비아 마니살레스 에스타디오 팔로그란데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스페인과 연장 승부를 마친 한국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 혼쭐낸 투혼 “형보다 나왔다”

U-20 월드컵 16강전 승부차기 6-7 석패

한국 축구 20세 이하 대표팀이 스페인에 승부차기에서 패해 월드컵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1일(한국 시간) 콜롬비아 마니살레스의 팔로그란데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전·후반과 연장전 120분 동안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6-7로 졌다. 한국은 스페인과의 첫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맞대결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아쉽게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전날 성인 대표팀이 일본과의 원정 평가전에서 0-3으로 완패한 때 다른 충격을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는 눈부신 선전이었다. 세계 최정상 스페인이 절대적으로 우세라는 예상을 뒤집고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이어졌다. 한국과 스페인은 각각 두 번째 키커로 나

선 코페(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이기제(중국대)가 실축해 정규 다섯 차례 승부차기에서 4-4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한국은 일곱 번째 키커까지 6-6으로 맞섰으나 여덟 번째에서 스페인의 오리올 로메우(바르셀로나)가 골네트를 흔든 뒤 김경중(고려대)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가 고배를 들었다. 전·후반 90분과 연장전 30분은 대등한 경기의 연속이었다. 한국은 전반 14분 최전방에 포진한 이용재(남트)가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골키퍼와 일대일을 노렸으나 볼 터치 불안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전반 19분에는 백성동(연세대)의 중앙 돌파에 따른 골문 앞 혼전에서 페널티지역 외곽으로 내준 볼이 김영욱(전남)의 중거리 슈트로 이어졌다. 아쉽게도 골키퍼의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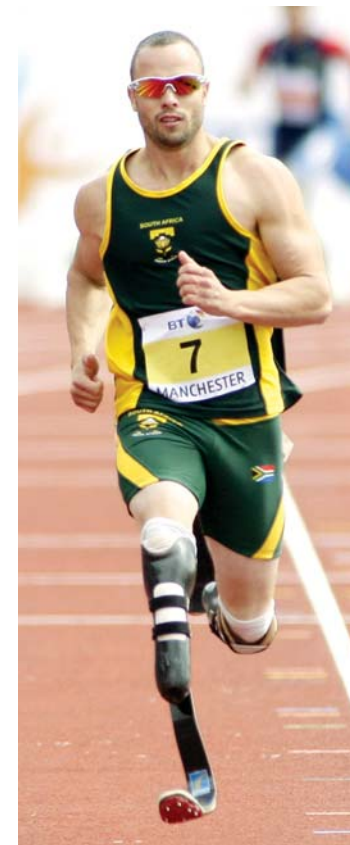
맞고 크로스바 위로 튀어나갔다. 상대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은 스페인이 전반 26분 호드리고(불턴)가 페널티지역 외곽 왼쪽에서 노마크에서 때린 슈팅이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 가슴을 쓸어내렸다. 후반 들어서도 미드필드부터 이어지는 한국의 압박은 여전했다. 한국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앞세워 상대의 기술 발휘를 봉쇄한 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기의 주도권까지 잡아갔다. 승부는 연장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전반 14분 백성동의 예리한 스루패스를 받은 이용재가 페널티지역에서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이 골문을 빚나갔다. 한국은 연장 후반 막판에 치명적인 실점 위기를 두 차례 넘겼다. 한국은 마지막 체력과 집중력을 끌어모아 한 발짝 더 뛰는 육탄 방어로 승부차기까지 몰고 갔지만 끝내 운이 따르지 않았다. /연합뉴스

“거미줄 같은 한국 공포스러웠다”

스페인 언론 감탄

“한국은 밀리미터 단위까지 잘 짜인 팀이었다. 스페인은 거미줄같이 끈끈한 한국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을 승부차기로 간신히 누른 스페인 대표팀과 언론들이 한국 청소년 대표팀의 경기력에 놀라움을 표했다. 즐렌 로페테기 스페인 U-20 대표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국이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쳐 아주 힘든 승부를 했다. 마지막 한계까지 몰렸다”고 칭찬했다. 스페인 언론도 한국의 투지와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다. 유력 일간지 ‘아베세(ABC)’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에 당한 승부차기 패배는 수년간 스페인을 유령처럼 괴롭혔다. 이날 세 번째 키커였던 코페가 실축하는 순간 그때의 공포가 재현되는 듯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또 다른 일간지 ‘엘 페이스’는 “스페인이 끝없는 승부차기 끝에 한국을 간신히 뿌리쳤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이 일어날 뻔했다”고 적었고, ‘엘 문도’는 “한국이 경기 내내 수갑을 채우듯 스페인을 공포 묶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일반선수와 당당하게 경쟁”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오는 27일부터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5·남아프리카공화국)가 일반 선수와의 역사적인 대결을 앞두고 들뜬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피스토리우스는 10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 큰 영광이다. 또 일반 선수와 경쟁할 기회를 잡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트랙에서 탄소 섬유 재질의 보철 다리를 착용하는 피스토리우스는 시각 장애 선수로 아일랜드 남자 100m에 출전한 제이슨 스미스(24)와 더불어 이번 대회에서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어 꿈의 도전을 펼친다. 그러나 최근 피스토리우스가 사용하는 의족의 안전성 문제와 의족으로 인한 경기력 향상 문제가 한꺼번에 대두하면서 그의 세계대회 출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피스토리우스는 이에 대해 “보철 다리가 경기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최근 인터넷에서 (나와 관련해) 잘못된 내용을 봤는데 결코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0-3 ‘삿포로 치욕’

10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0-3 참패를 당한 한국은 9월 시작되는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내달 2일 레바논과의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홈 경기까지 20여 일의 시간 동안 대표팀은 한 일전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측면 라인을 보강하고 느슨해진 수비조직력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이를 위해 대표팀은 축구협회 소집규정에 따라 경기 시작 4일 전(경기일 포함)인 오는 30일 광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모이게 되지만 27일 K리그 20라운드를 마치고 28일부터 국내와 선수를 대상으로 먼저 훈련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번 한·일전에서 조광래 감독은 정강이 빠 부상으로 빠진 이창용(불턴)의 오른쪽 측면 날개와 이영표의 은퇴로 생긴 왼쪽 풀백

한·일전 대표팀 완패 월드컵 최종예선 불안

의 공백을 뼈저리게 느꼈다. 더불어 전반 25분 만에 김영권(오미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표팀 수비진의 조직력이 순식간에 무너져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불안해진 수비 때문에 중앙 미드필드들이 전진하지 못하면서 전방 공격진들과 간격이 멀어져 원활한 패스 플레이를 하지 못하다 보니 90분 내내 일본에 끌려가는 졸전을 치르고 말았다. /연합뉴스

광주 FC, 상주로 ‘승점 사냥’ 나서

전남도 서울 원정경기

물러설 곳 없는 광주 FC가 상주 상무와의 한판 승부를 벌인다. 광주 FC가 13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상주 상무와 21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광주는 지난주 경남과의 경기에서 0-2패를 기록하면서 12위에 머물렀다. 이날 경기가 끝난 후 최만희 감독의 불호령이 떨어질 정도로 광주는 경기 내내 엄청난 플레이로 아쉬움을 남겼다. 승점사냥을 위해 조직력 훈련을 집중적으로

로 한 광주는 화력 접화를 위해 ‘공격수 3차 편대’ 박기동·김동섭·주양파울로의 특별훈련도 병행했다. 물러설 곳 없는 광주가 상주를 제물삼아 중위권 추격의 불씨를 피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남 드래곤즈는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 서울과의 원정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지난주 인천과의 대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홈경기 연속행진을 3연승에서 마감했다. 승점 1점을 쟁기는데 그쳐며 5위로 순위가 한 계단 떨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빌딩 임대층 내역 (분할가능)

지하 2층	397평
지상 2층	332평
3층	369평
10층	331평

무등빌딩에서 시작하십시오!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주차시설이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환경!**

무등전도타워
무등전도타워

면적 **332평/2층**
희망업종 금융·증권
 (즉시입주, 전액보증금가능)

임대문의 062) **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